김민환의 세상읽기

이대로라면 파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기업을 '신(神)의 직장'이라고 말한다. 부채는 많아도 임금은 높고, 과오에 대해 엔간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어떤 곳은 신규채용에 특혜를 주어 고용세습이 이루어진다. 복지후생 혜택은 세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지경이니 사람이 아니라 신의 직장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공기업에 대해 손을 볼모양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채가 많고 복지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정부의 공기업 관리는 일차로 임금과 복지를 살펴보는데 집중될 모양이다. 현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 현 부총리의 말에 답이 들어있다. 그는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 등을 공개하게 하고, 내년 상반기에 부채를 발생 원인에 따라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요 12개 기업 대상으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을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펴게 하겠다고 했다.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 부분이 미진하면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말 한 마디로 정말 오랜만에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사람이 많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이나 과잉복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한 현오석 팀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빚더미에 얹혀 있는데도 돈을 흥청망청 쓰는 적폐의 주된 원인으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든다. 전문성도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사장이나 감사를 맡아,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공기업이 예외 없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공감했는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은 그야말로 빌 공(空) 자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많은 공기업에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사장이나 이사, 또는 감사 감투를 썼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공기업 사장의 76%가 낙하산 인사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낙하산 인사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신문에 따르면 여러 공기업이 정치권 인사를 사장이나 임원 또는 감사로 맞이할 태세다. 경기도 화성갑 재보선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새누리당 후보를 내준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김학송 새누리당 전 의원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맡을 모양이다. 이분은 경남 김해에서 3선을 지낸 친박 중진으로 지난해 총선 때 '친박 배제' 여론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유세지원단 단장을 맡아 공신 반열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여권에서는 대놓고 정부에 낙하산 인사를 받으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현오석 부총리를 향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시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배려해 달라"며 노골적으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면 물밑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알만 하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공언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전문성이나 경력을 가리지도 않고 정치권 인사를 임원이나 감사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기업의 파티가 끝났다니 무슨 잠꼬대인가? 원인 요인을 근절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공기업 파티를 멈추게 하겠다는 것인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면 공기업(公企業)이 결국 공기업(空企業)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고려대 명예교수〉

기고

'동반성장 업무협약' 지속적인 결실 얻으려면

시 민 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선도 부처로서 고용률 70% 달성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여성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2년 고용률은 60.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아(전국평균 64.2%)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일자리창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자동차 협력기업의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인턴운영기관과 '채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2013년5월30일) 했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9개사 180명), '장시간 근로 개선'(8개사), '기능인력을 양성'(112명) 중이며,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금 지원(13억 원)을 하고, 예비근로자 인식개선을 위한 '자동차 중견기업 대표자 특강'(1개교 200여 명)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협력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13년 9월 25일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1차 협력기업 협의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광역시청,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등 지역 노사정 9개 기관과 '기아자동차(주) - 협력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지역 최대 기업인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은 2012년 매출액이 8조 원, 종사 근로자수 7000여 명으로 광주지역 제조업체 총 매출액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주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협력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400여 개사에 약 740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협력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장시간 근로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동차 협력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해결을 위해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에는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은 협력기업이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기업 노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력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에 협력하며, 광주고용노동청 등 참여기관은 협약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협약은 구직자가 협력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인 원도급사와의 임금, 복리후생, 작업환경 격차를 줄이고자 협력기업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노사정 기관이 함께 손잡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동반성장 업무협약'이 단기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과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언론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 번 '동반성장 업무협약'이 다른 모기업 협력기업에도 확산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번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좋아지고 기업이 성장하여 고용률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부처님의 선악 기준

종 서
구례 화엄사 수도암 주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인간의 행위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별하는 선악에도 기준이 있다. 선악이란 개인 대 개인, 조직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선악의 기준 중에서 개인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 그저 막연하게 좋은 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러한 선악의 기준 중에서 불교에서, 특히 부처님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아함경에는 이러한 선악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유행(유행이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마을을 옮겨다니는 것을 말한다)을 하시다가 밧지족이 사는 마을에서 하루를 묵게 되셨다.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수행자들은 어느 곳을 지나게 되면 그 마을에서 가까운 망고나무나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쉬었다가 다른 마을로 떠났다.

망고 나무 밑에 신흥교주(인도에서는 새로 깨달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요새 말로 신흥종교의 교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이신 석가족 출신의 부처님이 오셔서 쉬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의문점을 물었다.

"부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로서는 부처님이 진정으로 깨달으신 분인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전에 어떤 수행자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를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도가 가장 뛰어나고 궁극의 진리이니 나를 믿고 따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랐는데, 다시 어느 날 다른 수행자가 와서 이전 분과 같이 "내가 가장 훌륭한 도를 깨닫고 궁극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여, 우리는 그 전 분의 가르침을 버리고 새로운 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수행자가 오고 또다시 오고 하면서, 늘 자신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또 당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같은 주장을 하실 텐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당신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여러분은 그 주장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자신에게 이로우면 좋은 주장이요. 자신에게 이롭지 않으면 좋지 못한 주장이다. 다음은 그 주장이 남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남에게 해롭지 않고, 이롭다면 맞는 주장입니다."

부처님 말은 가장 올바른 주장은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주장이고, 두 번째는 남에게 이로운데 나에게는 해로운 주장이라는 의미다. 세 번째는 나에게는 이로운데 남에게는 해로운 의견이고, 가장 나쁜 주장은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주장이다.

"다시 어떤 사람이 어느 주장을 계속해오다가 다음날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좋은 주장을 할지라도 그 주장 속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와 같은 주장을 한다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주장은 나쁜 의견으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의견이 바르고 좋은 주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요점이 간단명료하다.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다른 권위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일상 개개인들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마치 부처님은 위대하신 종교의 교리를 깨달아 설명하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 자신이 부처님이니 내 권위에 절대 복종하라든지라는 위압적인 부분도 그 어디에 없다.

여러분도 자신이나 남의 말에 대해 선악의 근거를 잘 고려한다면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농촌환자 장기복용 약 처방전 재사용하게 해 주오

오래전부터 앓아온 농부증 때문에 친정의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관절과 신장 쪽이 안 좋아 항상 병원에 다니시며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 농부증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고, 또한 쉽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닌 병이라 평생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

농촌은 언제나 바쁘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아버님 같은 농부증이던 혹은 다른 농민들의 당뇨나 관절염 같은 질병을 앓는 농민들이 일일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농사일이 밀려서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만, 농촌에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에 서너 대밖에 들어오지 않는 버스 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올라타서 병원에 나가 치료와 처방을 받아서 돌아오면 이미 하루를 흘라당 까먹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바쁜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약이 떨어져 가는데도 병원에 가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약을 탈 수 있지만, 그 의사의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농사일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농민들도 많다.

농민들에게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재사용 제도라도 만들어 주기 바란다.

특히나 교통마저 불편한 외딴 시골처럼 병원도, 약국도 찾기 힘든 곳에서 통증을 참아가며 생활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심야에 위급한 상황이라도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 說

광주시내버스 인구에 맞게 노선 개편해야

광주시가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매년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노선이 구도심에 집중돼 있는데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인구 밀집지역은 버스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수완 1·2동, 첨단 1·2동, 효천·진월지구 등 신도심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년째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완·첨단지역 등은 인구가 38만3000여 명이나 되지만 버스 노선은 37개로, 1개 노선을 이용하는 평균 인구수는 1만400여 명에 달한다. 첨단 1·2동~수완~신창~신가~운남~우산~송정동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첨단 40번 버스가 유일하다. 운행시간도 무려 1시간19분이나 소요된다.

반면 구도심에서는 여러 대의 버스가 겹쳐 운행하는 중복노선도 많아 적자운영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동구는 인구 10만8000여 명에 노선수는 53개로, 노선당 인구 수가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 152건 중 노선 관련이 117건(77%)에 이르고, 금년에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예산난 등을 이유로 당분간 노선 확대나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내년도에는 버스 노선 관련 예산을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의 불편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예산 타령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편의는 시 행정의 가장 기본이다. 광주시는 신도심에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재정비를 해야 한다. 구도심의 중복운행도 개선해 교통 혼잡과 운행 비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광주시의 존재 이유가 없다.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 시급

김장철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광주지역 음식물 쓰레기 '대란'(大亂)이 우려되고 있다. 일일 처리량의 한계를 육박, 각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거리에 음식물쓰레기가 흘러 넘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관단이다.

각 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410t으로 김장철인 이달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배출량은 7.5%(30.8t) 증가한 440.8t이 배출될 전망이라고 한다. 광주 공공1 음식물자원화시설(하루 처리용량 150t)과 공공2 음식물자원화시설(〃 300t)의 하루 처리용량이 모두 450t인 점을 감안하면, 처리용량의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각 구청이 휴일엔 처리·운반을 하지 않아 다음날인 월요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평일보다 200t 늘어난 600t 가량 된다는 점이다. 각 구청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눠 분산처리를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달 말까지를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배출 사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김장이 피크에 달하는 12월에 음식물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예년의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광주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시는 비상한 각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휴일 처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민·관이 협력,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감량지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자원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조산(造山)

지명 가운데 조산(造山)이란 이름이 곳곳에 있다. 한자 말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산으로 규모는 크지 않다.

조산의 대부분은 풍수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풍수학에서는 어딘가 허한 구석이 있을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비보풍수(裨補風水)라고 하는데 이때 조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에 있는 조산이 대표적이다. 병영중 북쪽 논 가운데 있는 이 산은 조선시대 병마절도사가 인력을 동원해 만들었다.

병영성은 주위에 수인산·성자산·별락산이 호위하고 맑은 물이 세류교를 지나 금강천으로 흐르는 이른바 산수가 잘 어우러진 형세였다.

다만 앞쪽이 허하다는 결함이 있었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조산을 쌓았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도 원래 조산이었다. 1996년 발굴이 시작되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물론 아무도 이곳이 삼국시대 유력자의 무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향이 고분군 뒷 마을이라 어릴적 이곳에 가끔씩 놀러가곤 했다. 어른들로부터 조산에는 뱀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은 탓에 호기심에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소나무 사이 움푹 패인 곳에는 사금파리가 널려 있었는데 전리품처럼 한두 조각씩 가지고 달아나듯 나왔던 기억이 새롭다.

이곳에서 금동신발과 철제관모 등 300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원래는 칠조산(七造山)이라 해서 일곱개의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경지정리과정에서 사라지고 4개만 남았다가 발굴로 복암리 고분군이 됐다.

복암리 고분군 근처에서 이번에는 정촌고분이 발견됐다.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 고분중 최대 규모의 방대형(네모진 평면에 봉분 윗면을 편평하게 만든 고분)이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명이 붙여진 사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산(造山) 어디에 또 어떤 유적이 숨어 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